5위 KIA, 한화 꺾고 3연승 질주

버나디나 결승타로 6-4 역전승 이끌어

삼성과 2.5게임차…3일 대구서 맞대결

KIA 타이거즈가 한화를 꺾고 3연승 질주하며 가을야구 마지막 티켓에 다가서는 모양새다.

6위 삼성과 2.5 게임차를 벌이며 5위 경쟁에서 앞세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KIA는 지난달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에서 6-4로 역전승을 거뒀다.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외국인 타자 로저 버나디나가 팽팽한 경기의 균형을 깨는 적시타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 등판한 한승혁이 2회초 1점을 뺏겼지만, 바로 균형을 맞췄다. 2회 말 1사 3루 찬스에서 김민식의 희생플라이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한승혁이 다시 3회초 한화 외국인 타자 제러드 호잉에게 우중간 적시 2루타, 이성열에게 중견수 쪽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KIA는 1-4로 다시 리드를 내줬다.

한승혁을 구원 등판한 임기영부터 임기준, 황인준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한화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다.

타선도 중반부터 점수를 뽑았다. 3점 차로 끌려가던 5회말 버나디나의 적시 2루타를 포함해 3점을 뽑아 4-4 동점에 성공했다.

7회까지 이어지던 팽팽한 분위기는 8회에 깨졌다. 8회 말 1사 이후 이범호가 우익수 쪽 안타, 김민식이 우전 안타를 쳤고 상대 투수의 폭투가 나오면서 1사 2, 3루 기회를 잡았다.

다음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버나디나가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때리면서 KIA는 6-4로 역전하며 승기를 잡았다.

2점 차 앞선 상황에서 KIA는 9회초에 마무리 투수로 김윤동을 마운드에 올렸다. 김윤동은 1이닝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다.

한편, KIA는 오는 2일 광주에서 NC, 3일 대구에서 삼성과 마지막 접전을 펼친다.

4일부터는 인천에서 SK와 3연전을 갖고 7일에는 잠실로 옮겨 두산과 경기를 갖는다. /황애란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KIA 1번타자 버나디나가 4-4로 맞선 8회말 2사 2,3루에서 2타점 우전 적시타를 터뜨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이랜드에 4-1 완승…PO진출 불씨 살려

나상호 13골로 득점 선두

프로축구 광주FC가 8경기 동안 이어진 기나긴 무승 부진에서 탈출하며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살렸다.

광주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무승 탈출과 함께 승점 39점으로 4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45) 추격에 시동 걸었다.

이날 광주는 공격과 수비에서 이랜드를 압도했다. 나상호와 두아테르의 화끈한 공격과 끈끈한 조직력으로 이랜드의 수비라인을 흔들었다.

포문은 광주가 먼저 열었다. 전반 17분 나상호가 쇄도하며 때린 슈팅이 서울 이랜드 골키퍼 김영광에게 막혔지만, 두아르테가 빈 골대를 향해 가볍게 밀어 넣었다.

서울 이랜드가 반격에 나섰다. 조찬호가 전반 25분 사각지대에서 시도한 슈팅이 제종현 손에 막혔다. 전반 39분 최치원의 시저스킥은 살짝 빗나갔다.

전반전을 1-0으로 마친 광주는 후반전에도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두 번째 골은 후반 17분에 나왔다. 오른쪽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왼쪽에 있던 이승모가 정확한 헤딩 패스로 연결했다. 이를 김동현이 왼발 강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광주는 3분 뒤 나상호가 스루패스를 받아 쐐기 골을 넣었다. 나상호는 3-1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추가 골까지 기록했다.

시즌 13호 골을 넣은 나상호는 FC안양 알렉스를 제치고 K리그2 득점 선두로 뛰어올랐다. /황애란 기자

광주FC 두아르테가 지난달 3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0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오늘 '벤투호 2기' 대표팀 명단 발표

부상 지동원 대체 김신욱·석현준·나상호 물망

우루과이, 파나마와 10월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 발표가 임박하면서 대표팀 사령탑인 파울루 벤투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투 감독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벤투호 2기' 대표팀 소집명단을 발표한다.

대표팀 선수들은 같은 달 8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담금질을 시작하고, 12일 우루과이(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 16일 파나마(오후 8시, 천안종합운동장)와 차례로 평가전을 벌인다.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두 번째 발표하는 소집명단에는 9월 A매치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면서도 부상 변수와 선수 발굴을 위해 소폭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가장 관심이 끄는 포지션은 부상 여파로 10월 A매치 출전이 어려워진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대체 선수가 필요한 공격수다.

지동원을 대체할 공격수 후보로는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전북)과 프랑스리그앙의 유럽파 석현준(랭스), 광주FC 나상호 등이 물망에 오른다.

올 시즌 K리그1(1부리그)에서 9골을 넣은 김신욱은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찾은 벤투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원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헤딩골을 터뜨렸다.

저돌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인 석현준의 발탁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석현준은 지난 8월 9일 랭스로 이적 후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석현준은 아직 벤투 감독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활약 기회가 없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젊은 피' 나상호(광주FC)도 지동원 대체 공격수 후보로 꼽힌다.

나상호는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에서 외국인 공격수 알렉스(안양)와 나란히 11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다.

벤투호의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일본 J리그1에서 매서운 화력을 뽐내는 황의조(감바 오사카)의 벤투호 2기 승선이 유력한 가운데 아시안게임에 이어 A대표팀에서도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미드필더 황인범(대전)과 수비수 김문환(부산)도 대표팀의 한 자리를 예약했다.

월드컵 부상 여파로 9월 A매치에 뛰지 못했던 골키퍼 조현우(대구)의 복귀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격수 황희찬(함부르크)과 미드필더 이재성(홀슈타인 킬)도 2기 멤버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렉시콘 우수선수에 김윤동·안치홍

KIA타이거즈 투수 김윤동과 내야수 안치홍이 구단 후원업체인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가 시상하는 '렉시콘 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김윤동은 올 시즌 58경기에 등판해 73.1이닝을 던지며 6승(6패) 3세이브 17홀드 평균자책점 3.93을 기록 중이다. 특히 중간계투부터 마무리까지 불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안치홍은 올 시즌 117경기에 출전해 22홈런, 108타점, 83득점 타율 0.356의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중심타자로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만은 우수선수로 선정된 김윤동과 안치홍에게 165만원 상당의 AKG N90Q 헤드폰을 상품으로 전달했다. 이날 시상은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백선영 전무가 했다.

한편, KIA타이거즈와 하만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공동 마케팅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임창용 한·미·일 통산 1천경기 출장

KIA타이거즈가 지난달 30일 광주 한화전에 앞서 한·미·일 프로야구 리그 통산 1,0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임창용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임창용은 지난달 18일 대구 삼성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하며 한국과 일본, 미국 통산 1,000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KIA타이거즈 구단은순금 야구공을 제작해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한편, 임창용은 이날 현재 KBO리그 758경기, 일본프로야구(NPB) 238경기, 미국프로야구(MLB) 6경기 등 한국과 일본, 미국 통산 1,002경기에 나섰다. /황애란 기자

강정호, 727일만에 선발…4타수 1안타

빅리그에 복귀한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깔끔한 안타로 건재를 뽐냈다.

강정호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400(5타수 2안타)이다.

그의 메이저리그 경기 선발 출전은 2016년 10월 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727일 만이다.

29일 신시내티전에서 대타로 빅리그에 복귀해 안타를 때려 타격 재능을 과시했던 강정호는 2018시즌 막판 2경기 연속 안타로 피츠버그와 재계약 가능성을 높였다.

강정호는 2회초 첫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4회초에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두 타석에서 침묵했던 강정호의 방망이는 0-3으로 끌려가던 6회초 날카롭게 돌아갔다.

강정호는 마이클 로렌젠의 시속 150㎞ 초구를 밀어쳐 우익수 앞으로 총알 같은 타구를 날렸다. /연합뉴스

전남체육회는 지난달 29일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2018년 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했다.

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성료

20개 시·군 800여명 참가…학부모 참가 등 변화도

전남체육회는 지난달 29일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2018년 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안병옥 강진부군수를 비롯해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왕명석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심우천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체육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해 4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생활체육 활성화 공모사업 '대회형' 분야에 선정, 전국 최초로 유소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는 특전을 누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에 주소를 둔 20개 시·군 800여명이 초등학생들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대회 개최 취지에 걸맞게 협동심과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로 변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 제공해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대회 개최 취지 및 참가자들의 만족도, 호감도가 상승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지구를 굴려라, 풍선기둥 세우기, 칙칙폭폭 기차릴레이, 장애물달리기' 등으로 국한된 프로그램은 올해는 '태산봉 릴레이, 색판 뒤집기, 박 터트리기, 서바이벌 깃발잡기, 훌라후프 왕 선발, 바구니 탑 쌓기, 바람잡는 특공대, 흥부네 가족 릴레이, 단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으로 다양화됐다.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과 가족간 협동심 기르기, 가족애 느끼기 등 기대효과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스포츠 참여로 지속적인 생활체육 연계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대축전 개최 취지 역시 충분히 살려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전남체육회 정건배 사무처장은 "이번 축전을 통해, 체육놀이를 통해 사회성 발달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고취시켰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체육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통해 스포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